

의령군, 2024년 인구 순유입률 경남서 두번째로 높았다

등록 2025.02.12 15:48:47



[의령=뉴시스] 김기진 기자 = 지난해 경남 의령 인구 순유입 비율이 경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2일 동남지방통계청 '2024년 연간 동남권 인구가동통계'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5개 시군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.

의령군(0.3%)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,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(1.3%) 다음으로 경남에서 인구 순입률이 높았다.

의령군은 2023년 '순유출'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'순유입'에서 상위 2위를 기록했다.

특히 의령군은 부산-울산 광역시 시군구가 포함된 조사에도 순유입률이 6위를 나타내 동남권 전체에서도 인구 유입률이 높은 편이었다.

의령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'주택'과 '주거환경' 지표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'자연환경'이 그 뒤를 이었다.



[의령=뉴스시스]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후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'도민 상생토크'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오른쪽은 오태완 의령군수.(사진=경남도 제공) 2025.01.21. photo@newsis.com

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로 청년귀농인 523가구가 전입을 해와 순유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.

전입 사유는 주택, 주거환경, 자연환경 순으로 나타나 재개발·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,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.

오태완 군수는 "합계출산율 1위, 도시 재방문율과 20대 미만 생활인구 경남 최고 수준 등 인구 관련 지표 상승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"이라며 "순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.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sky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